

제5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祝 辭

2019. 10. 28(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만찬에 참석해주신
탄 싱(Thant Sin) 미얀마 대사님을 비롯한
아세안(ASEAN) 국가 대사님들 그리고 인도 부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5년에 처음 개최된 이 만찬 간담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곧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행사이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Ⅱ. 對 아세안 · 인도 협력관계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은 인구 6억 4천만명, GDP 2조 9천억달러,
평균 경제성장률 5%의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구 13억 2천만명, GDP 2조 7천억달러,
경제성장률은 6.8%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과 인도 지역의 잠재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를
핵심가치(3p)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양한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는 최초로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시는 등
對 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는
한국과 아세안 대화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Ⅲ. 한-아세안 금융협력 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인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있어서,
금융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인니, 베트남을 각각 방문하여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이해와 교류를 높였습니다.

금융당국간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초청연수, 직원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세안과 인도에서 영업중인 한국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금융, 신용평가, 예금자보호 등
한국에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고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금융 관련 법·제도, 시스템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신남방 국가에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과 같은
금융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핀테크 기술과 접목하여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높은 청년인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가 발달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하노이에서 핀테크 데모데이와
금융회사 핀테크랩의 현지 개소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핀테크기업과 현지의 핀테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가

그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강조해 온
아세안 회원국간의 통합과 금융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축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IV.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금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는
경제·문화·안보 등 각 분야별로 한-아세안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 이외에도

미래 유망 기술을 선보이는 특별체험전시관*,
문화 교류의 장인 ‘아세안 판타지아**’,
‘스타트업 엑스포’,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미래 자동차·에너지 등 유망 기술·산업 분야 협력사례 소개 등

** 아세안 아티스트·케이팝 스타 협연 콘서트(11.24일, 창원)

*** 아세안 음식 소개 행사(11.15~27일, 부산)

오늘 자리해 주신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의 대사님들께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한국의 금융을 알리는 길잡이로서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은행장님,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금융 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간담회」가
한국과 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통합의 고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